

한국P&G '스마일클럽 온에어 딜'...최대 35% 할인

한국P&G가 13일까지 G마켓에서 '스마일클럽 온에어 스페셜 딜' 기획전을 진행한다. 고객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우니, 질레트, 페브리즈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수익금 일부는 세계자연기금(WWF)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보호에 사용된다. 정정욱 기자



금융 | MZ세대 고객 겨냥, 친근한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

시중은행들, 라바·유미·무민과 '편편한 콜라보'

신한銀 쏠, 라바 연계 상품 등 구상
우리銀 '유미의 세포들'과 적금 판촉
IBK기업, 'IBK 무민 체크카드' 선배



시중은행들이 무민, 뽀수, 유미 등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유미의 세포들'과 협업한 '우리 200일 적금' 양코르 행사(왼쪽)와 인기 동화 캐릭터 무민과 협업한 'IBK 무민 체크카드' 사진제공 | 우리은행·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은 네이버웹툰 인기 연재작 '유미의 세포들'과 협업한 '우리 200일 적금'을 10만장 추가 판매하는 양코르 행사를 진행 중이다. 9월 론칭한 이 상품은 10만 계좌 한도가 6주 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모바일뱅크 우리WO N뱅크에서 하루 3만 원 이내 입금 가능하며 이자는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1.3%포인트를 합쳐 최대 2.3%를 제공한다. 23일까지 적금 가입자 중 200명을 추첨해 피규어, 인형, 파우치 등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상품을 증정한다.

IBK기업은행은 핀란드 캐릭터 '무민'과 콜라베이션한 'IBK 무민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무민 디자인에 항균필름을 입혀 바이러스와 세균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항균 카드다. 31일까지 무민 75주년 특별전, 무민카페오픈, 무민랜드제주 입장 시 최대 3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 측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핀란드 대사관과 조인식도 가졌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문화 교류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KT "AI에 주문하면 로봇이 서빙한다"



KT는 외식업체 썬앳푸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외식업체 디지털 혁신(DX)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는 새로 오픈한 사부사부 전문점 '모던샤브 하우스 광화문D타워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KT는 모던 샤브 하우스 내 '지니 룸' (사진)에 사부사부 레스토랑 맞춤형 AI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테이블에 비치된 기기나 단말을 통해 음성으로 요청사항을 말하면 음식을 포함해 리필 메뉴, 앞접시, 생수 등을 서빙로봇이 자리로 배달한다.

LG전자, 투명 올레드 자동문 상용화 MOU

LG전자는 도어 오픈형 솔루션 업체 아사아블로이와 손잡고 투명 올레드(OLED) 자동문을 상용화한다. 양사는 8일 이와 관련한 '투명 올레드 자동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사아블로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기계식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방화문, 자동문 분야 글로벌 기업이다. 양사는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55EW5G)를 활용해 만든 자동문을 시장에 공급한다. 투명 자동문에 광고를 띄우거나 웰컴 메시지, 건물 정보 등 고객이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

현대차-LS일렉트릭, 수소전기 발전시스템 개발 MOU 체결

내년 시범사업용 시스템 선보일 예정
선박·열차 등 다양한 분야 확대 추진

현대자동차와 LS일렉트릭이 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사회 조기 구현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시스템 개발 협력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8일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경기 용인시 소재)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 박순찬 현대차 연료전지사업실장(상무), 오재석 LS일렉트릭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 김영근 LS일렉트릭 CTO(최고기술책임자,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및 공급 관련 상호협력'을 내용

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MOU를 계기로 양사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및 기술지원을, LS일렉트릭은 발전시스템 제작 및 통합솔루션 구축을 담당한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등에 적용된 95kW급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차량용에 걸맞은 뛰어난 응답성 및 시동성이 장점이다.

양사는 해당 발전 설비의 실증을 거쳐 2021년 시범사업용 발전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필요한 시기에 즉시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건물·산업용 비상발전 및 전력 피크 대응, 전동화 확산에 따른 전력망 부하 저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수급 변동성 및 전력망 불안정성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점진적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양사는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시스템 시장 확대 등 수소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은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승용차, 상용차뿐 아니라 선박과 열차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본격 확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LS일렉트릭이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오른쪽), 오재석 LS일렉트릭 글로벌사업본부장이 MOU 체결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오재석 LS일렉트릭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향후 글로벌 전력시장에도 해당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 시대 열렸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민간업체의 인증서로도 본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1년 동안 지속돼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사라지면서 공인인증서는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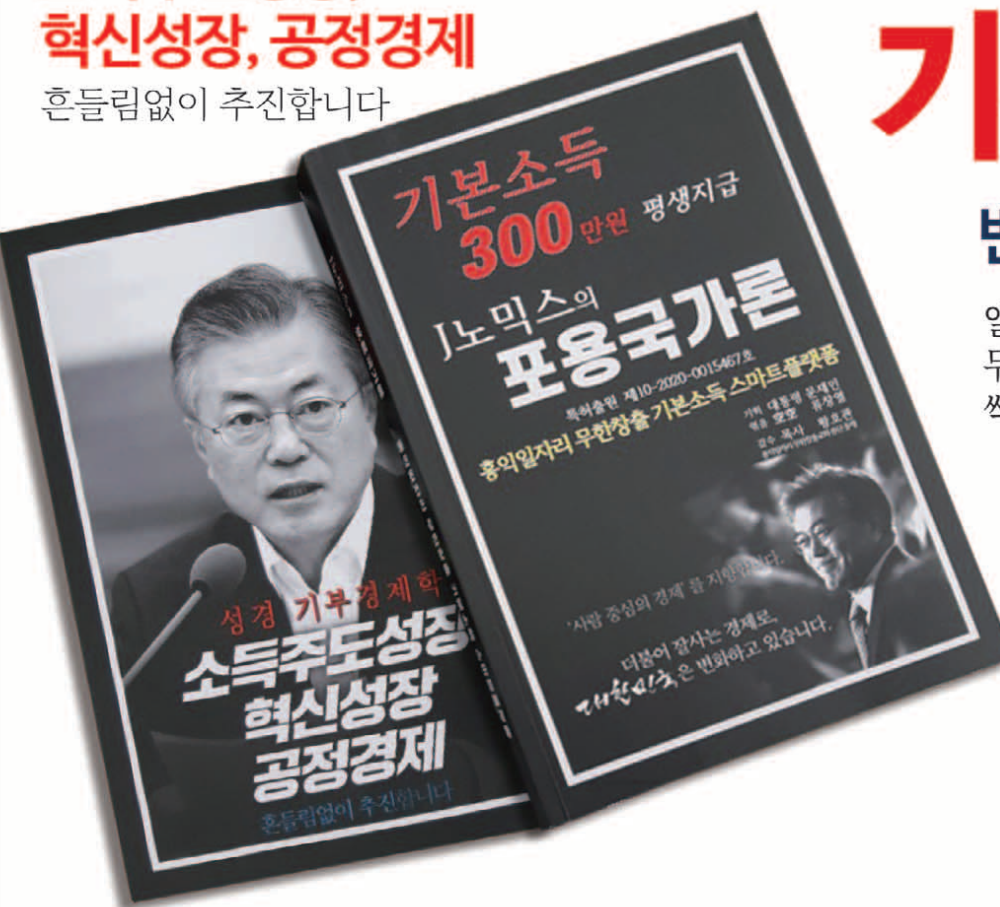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8년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이 발표된 뒤 도입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사인, 토스, 페이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가입자가 공인 전자서명 가입자를 넘어섰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자서명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자본공유앱'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묘야! 철밥통 관료들이!
씩을 때로 씹어 쫓겨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상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차 우분투 기본소득 신 트레나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 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철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병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남 010-4741-7008
● 창원교 010-7374-4111 / 서재훈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한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송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3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허찬석 010-4707-2659
● 한성희 010-5177-9479 ● 여주 상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강영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병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교명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악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